

# 유신정권기의 생체정치와 젠더화된 주체 만들기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와 하이틴 영화를 중심으로-

권은선\*

## 〈차례〉

1. 서론: 1970년대 한국사회와 생체정치
2.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젠더화된 생체 정치와 여성 주체성
  - 2.1. 새마을 영화와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라는 짝패
  - 2.2. 하층계급여성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경합-『영자의 전성시대』
3. 하이틴 영화: 명량하고 건전한 남성 주체 만들기-『고교야개』
  - 3.1. 노동역량과 남성우정신화
  - 3.2.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사전처방으로서의 섹슈얼리티
4. 결론

## 〈국문초록〉

70년대 독재 권력은 국익과 개발의 이름으로 국민 동원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원의 살아있는 신체, 삶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고 정치적 영역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생체권력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 개발독재라는 특정한 한국의 정치사회적 문맥 하에서 몸/삶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자 의미투쟁의 장으로서 대중 영화 텍스트들을 읽고자 했다. 여기서 본 논문은 하이틴 영화와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에 집중했다. 주체화 및 근대성과 관련하여, 하이틴 영화 『고교야개』는 청소년의 재주체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10대 남성주체는 훈육, 역량 강화, 정신개조, 남성 우정신화 등을 통해서 자본주의에 기반한 개발 국가에 적합한 유용성 있는 건전한 주체로 다시 태어난다. 반

\* 중부대학교 연극영화과 조교수

면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는 하층계급여성들의 몸을 유순한 몸으로 치환시켜 포섭하거나, 그들을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배제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다.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개발독재 국가가 근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체정치를 통해 성원들을 ‘국민’으로 구축하고 주체로 호명하는 방식은 이처럼 성별 정치에 기반한 것이었다.

핵심어: 생체정치, 개발주의 국가,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하이틴 영화, 주체성

## 1. 서론: 1970년대 한국사회와 생체정치

식민지 경험, 전쟁 그리고 독재정권과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수용소, 생체실험, 가족계획, 국가보건정책 등과 같이 무수한 생체정치적<sup>1)</sup> 체험을 하였다.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가 부부의 성생활을 관리한 가족계획운동은 오늘날 코미디 영화에서 격세유전의 웃음 소재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처럼 20세기의 유산은 냉전과 전체주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생명복제기술과 줄기세포를 둘러싼 ‘황우석 논

- 
- 1) 생체정치라는 개념은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가 『성의 역사-삶의 의지』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그가 사용한 원어는 bio-politique, 영문 판본은 bio-politics이다. ‘bio’는 생명을 뜻하는 결합사인데 삶, 생명, 목숨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이 개념을 발전, 확장시킨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la nuda vita’라는 개념을 핵심어로 사용하는데, 번역서는 이를 ‘벌거벗은 생명’으로 표기하고 있고, 이 책에서 언급되는 bio-politique는 생명정치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안토니오 네그리 등 이태리 아우또노미아 학파의 저술들을 번역한 역서들은 삶정치, 삶권력, 삶-정치 등을 선호한다. 요컨대 이 단어는 번역어를 두고 경쟁 중에 있으며 아직 하나의 용어로 합의되거나 정착되지 않았다. bio-politics가 넓은 의미로는 삶을 정치의 영역에 포함 시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삶정치’가 가장 포괄적인 용어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생체정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생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생명/삶과 동시에 살아있는 ‘신체’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의 문맥에 따라서 또는 인용문인 경우 생명정치 혹은 삶정치라는 용어를 혼용할 것이다.

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두고 맞선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 이주 여성 결혼정책 그리고 저출산율 해소를 위한 정책<sup>2)</sup> 등은 최근 한국에서 국가, 법, 주권, 자본, 별거벗은 생명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생체정치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개발, 조국근대화, 산업화, 수출증대 같은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훈육하고 독려한”<sup>3)</sup> 유신체제는 생체정치에 기반한 시기였다. 1970년대 후반 개발 국가 남한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근대성을 선취한 세계체제의 중심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하여 속도전과 총력전을 펼쳤다.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같은 거시적 차원은 물론 국민들의 일상적 영역인 미시적 차원까지 모든 삶의 영역을 정치적 영역에 포함시켰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헌장」의 첫 문장은 박정희 시대의 생체정치적 특성을 압축적이고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 문장은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생체정치의 정식화다. ‘이 땅에’라는 속지주의에 근거해서 ‘태어남’이라는 자연적 탄생이 즉각적으로 ‘우리’라는 민족공동체 속으로 호출되며, 또한 곧바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정치적 의무로 귀속된다. 출생이라는 단순한 자연적 소여가 ‘민족중흥’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의무들을 수반하는 것이

2)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 세 자녀 이상 가족 아파트 우선 공급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아이를 허위로 입양한 사건은 이러한 생체정치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3) 조희연은 바로 훈육국가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유신체제기 남한이 훈육국가의 모습을 취했다고 논한다. 그는 남한의 훈육국가 모습은 박정희 체제에서 생체적 훈육국가, 도덕적 훈육국가, 국가주의적 훈육국가 등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이 드러났으며, 가족계획 실시에서는 생체적 훈육국가의 모습을, 충효와 민족주체성의 강조에서는 국가주의적 훈육국가의 모습을, 그리고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데서는 도덕적 훈육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논한다. 특히 그는 혼분식 운동이나 가족계획운동 같은 것을 통해 생체적 훈육국가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5.16에서 10.26까지』,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역사비평사, 2007, 173쪽.

다.4)

이렇듯 생물학적 소여가 그 자체로 정치적이며, 또한 정치적인 것이 생물학적 소여라는 사실이 바로 근대 생체정치의 새로움이다. 20세기에 발현한 전체주의는 생명과 정치의 이러한 역동적인 동일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sup>5)</sup>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에 따르면, 국민(nazione)이 어원상 태어나다(nascere)에서 유래했듯이, 근대 국가의 토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유롭고 자각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벌거벗은 생명, 단순한 출생 그 자체다. 따라서 근대성의 과제는 ‘벌거벗은 생명’<sup>6)</sup>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에(zoe)를 비오스(bios)<sup>7)</sup>로, 단순한

4) “국민의 윤리와 정신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하여 반포된 국민교육헌장은 70년대 각 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암기해야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5)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283-284쪽.

6) 아감벤이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는 이 ‘la nuda vita’는 발터 벤야민 (Balther Benjamin)이 『폭력비판에 대하여』에서 사용한 ‘das blasse Leben’을 가져온 것이다. 독어로 blasse는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발가벗겨진, 폭로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란 의미에서 단순한, 단지, 그 자체로의, 매개되지 않은 등의 의미를 가진다. 벤야민은 정치신학적 측면에서 ‘위력 있는 삶’, 즉 ‘신적 위력이 있는 삶’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단지 삶’, ‘그것 그 자체의 삶’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의 영역본은 이 용어를 ‘bare life’로 번역하고 있다. 『호모 사케르』의 한역본을 번역한 역자는 “벤야민의 용어가 ‘한가 삶’, ‘다만 그것만의 삶’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반면, 아감벤의 이 개념은 ‘벌거벗은’이라는 직접적, 물리적 의미가 보다 강하며, 저자가 이

생명(zen)을 가치 있는 삶(eu zen)으로, 생명 획득을 정치적 삶으로, 조예를 폴리스 내에 포함시키는 것을 뜻한다. “정치란 달리 말해서 인민의 생명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는 것”<sup>8)</sup>이다.

유신정권은 끊임없이 단순 생명을 특정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고자 했던 생체권력이었다. 「국민교육헌장」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시기 가치 있는 삶이란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는 삶이며, 또한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의 삶”이다. 다시 말해, 개인은 국가건설에 참여하는 한에서만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sup>9)</sup>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를 위한 민족 총동원의 정치체제 속에 구성원의 생명/삶을 끌어 들여,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자 하였다. 박정희의 지상과제는 ‘조국근대화’를 향한 ‘국가재건’이었다. 국가재건의 3대 핵심 과제 혹은 목표는 “국가발전, 자주국방, 민족정체성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발전이란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자주국방은 반공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며, 민족정체성확립은 민족문화창달을 통해 이루어진다.<sup>10)</sup>

개념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각인해나간 사정을 고려하여 ‘벌거벗은 생명’으로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다. 본 글은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한역본을 따라 ‘벌거벗은 생명’으로 사용한다.

- 7) 그리스어는 오늘날 삶/생명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론적으로나 어형론적으로 다른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하였는데, 조예(zoe)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것으로 살아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가리켰다. 반면 비오스(bios)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가리켰다.
- 8) 페르슈어, 『인종위생학』, 위의 책, 283쪽에서 재인용.
- 9) 「국민교육헌장」과 더불어 구성원들이 학교 및 직장,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매일 암송해야 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 역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발화케 함으로써 민족구성원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조국과 민족으로 수렴토록 했다.
- 10) 그런데 이 시기 지배담론 속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곧 반공주의(자주국방,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자주국방에 도달하는 길은 “잘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반공주의는 국가발전의 전제조건이며,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반공주의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렇듯 자본주의적 산

자본주의적 산업화, 반공주의, 민족문화창달의 매듭으로 이루어진 박정희 정권의 국가재건 프로젝트는 정치적 가치를 결여한 삶들의 끊임없는 배제과정이었다.<sup>11)</sup> ‘빨갱이’, 간첩들은 당장 축출되어야 했다. 또한 조국 근대화는 과잉 착취당하는 노동자 특히 여성 임금노동자 및 성매매 여성들의 배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라는 호명은 대문자 우리 속에서 힘 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배제하면서 혹은 배제를 통해 포함함으로써 구축된다.

박정희 통치기간 중에 행해진 생체정치의 지도를 그려보기 위해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논의한 생체정치의 두 가지 기술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푸코는 17세기 이후 삶에 대한 권력이 두 축으로 전개되었다고 논한다. 첫째는 인체의 해부정치(an anatomo-politics of the human body)로서, 육체규율 및 기계로서의 육체에 중점을 두고 전개된 것이다. 이는 규율을 특징짓는 권력 절차로서 육체의 조련, 최대한의 육체 활용, 체력의 착취, 육체의 유용성과 순응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그것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통제체제내로 육체를 통합한다. 두 번째는 인구의 생체정치(a bio-politics of the population)로서 종개념으로서의

---

업화(국가발전)와 자주국방(반공주의)은 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다. 두 담론 영역은 동일한 지향점과 의미를 내포했으며, 서로를 깊숙이 파고들으로써 그 경계선을 나눌 수 없는 비식별역을 만들어 낸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라는 표어인 동시에 「새마을 노래」의 가사이기도 했던 이 문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민족문화창달은 이 두 목표를 정신적 영역에서 떠받치며 매개하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였다. 통치기간 동안 박정희 정권은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각종 신화와 의례들을 발전시켰다.

11) 이러한 국가재건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질서구축을 추구한다. 그런데 질서구축 과정이란 필연적으로 사회체내에 경계들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질서란 제한과 유연성을 대변하며, 질서구축이란 설계도에 따라 유관한 것과 무관한 것을 갈라내고, 현실에서 다루기 쉬운 부분을 조작하기 힘든 부분으로부터 걸러내는 작업이다. 근대 생체정치의 본질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내부의 생명과 외부의 생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리하는 경계선을 끊임없이 재정의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자연생명에서 소위 진정한 생명과 일체의 정치적 가치를 결여한 생명을 구분해 낸다. 즉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생명”을 구분하는 것이다.

육체, 생명 역학과 관련된 ‘생물학적 육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다. 증식, 출생 및 사망률, 건강 수준, 수명, 장수, 그리고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그 중심이다. 즉, 인구의 생체정치에 있어서는 개입하고 조절하는 통제가 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전자에 있어서는 신체를 순응적인 육체로 만드는 규율이 핵심이라면, 후자에 있어서는 인구와 관련된 조절 및 통제가 핵심으로 이러한 기술체계는 삶을 온통 에워싸는 것이 최고의 기능이다.<sup>12)</sup> 엄밀한 의미에서 푸코가 말하는 생체정치는 후자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푸코가 누누이 두 영역의 교차점을 강조했음을 상기하면, 인체의 해부정치와 인구의 생체정치는 생체정치의 고유한 두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삼엄한 세계적인 냉전체제하의 분단국이라는 상황 하에서 급격한 근대화 와 산업화의 추구를 통해 서구의 근대성을 따라 잡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은 권력-삶을 사용하여 이 두 영역을 포괄적인 통치성 내로 끌어들이었다. 병역과 예비군제도, 방공관제훈련, 학도호국단, 통행금지, 각종반공 쫓기대회, 반상회조직, 새마을운동, 스마일운동, 국민보건체조, 국기 하강식, 대체복무제도, 합리적인 가정경영 캠페인, 장발단속 및 미니스커트 규제 등이 신체 규율에 방점을 두는 인체의 해부정치였다면, 가족계획운동과 혼분식운동, 그리고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매매춘 국책사업화’의 일환인 군기지 정화운동 등은 인구의 생체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생체정치들이 기획되고 주체들을 호명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젠더화된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가족계획 운동은 그 규모나 지속성, 그리고 파급효과나 국민성원들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기의 대표적인 생체정치 기술이었다. 인구의 생체정치기술인 가족계획은 애당초 경제개발을 목표로 한 것이다. 저개발국의 인구증가가 경제발전에 방해가 되고 너무 많은 인구는 빈약한 자원을 고갈시키며 경제성장의 열매를 작게 만든다는 세계은행의 보고를 한국 정

12)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제1권- 삶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6, 149-150쪽.

부가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다.<sup>13)</sup> 이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의 반-주변국가였던 개발도상국 한국이 서구 선진국의 인구과잉이라는 개념을 내면화했던 것으로, 이는 사실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 Bauman)이 지적하듯이 서구 부국(富國) 자신들의 걱정을 타자인 제3세계 국가의 과잉으로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sup>14)</sup> 서구의 불안이 타자에게 투사됨으로써, 제3세계 여성의 몸이 재생산을 둘러싸고 국가 정치의 대상으로 포섭되었던 것이다.

한편 박정희 정권기에 시행되었던 규율적 측면을 강조하는 생체정치기술들은 한국사회의 군사주의 및 유교적 권위주의와 맞물려 들어감으로써 젠더화된 특성을 가졌다. 남성들은 군사제도와 대체복무제도 등을 통해서 군산복합체의 역군으로서 국민 만들기에 동원된 반면, 여성들은 합리적인 가정경영 캠페인, 미니스커트 단속 등의 생체정치기술을 통해 현모양처의 위치로 호명되었다. 이렇듯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도, 한미동맹과 “달러 박스”라는 국가의 대의명분과 이익을 위하여 기지촌 성매매를 국책사업화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삶/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기지 정화 운동을 실시한 것은 개발독재 국가 생체정치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다.

18년간 유지된 박정희 통치기간 중에서도 항시적 예외상태가 구축된 1970년대 유신체제기는 생체정치가 그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기에 대중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영화 장르가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하이틴 영화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시기 국가의 단속, 통제, 검열의 주된 대상은 청년, 청소년, 그리고 주변화된 하층 계급 여성들이었다. 이 세 집단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회정화담론에 기반한 통치기술의 주 대상이 되었다. 우선 청년층은 체제가 원하는 사회개혁의 미래를 이끌고 가기를 요구받는 대상이며, 청소년층은 ‘아직

13) 문승숙,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이현정 옮김,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6, 119쪽.

14)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존재들'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풍기문란 여성', 성매매자 같은 주변화된 존재들은 남성중심의 '정상' 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통치기술의 대상이었다.<sup>15)</sup>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1970년대 중반에서 중반까지 유신체제기 동안 한국영화의 장르적 상상력을 지배했던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하이틴 영화가 이러한 지배 권력의 주요한 생체정치 대상과 조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장르들은 각기 청소년, 하층계급여성을 순응하는 주체로 만들려는 지배 권력과 그러한 호명에 대해 순응하고 저항한, 즉 이들의 '벌거벗은 몸'을 두고 문화 정치적 영역에서 벌어진 의미 투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유신 체제기의 생체정치가 기본적으로 젠더화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에 따른 주체화의 양상을 당대의 대중적 장르였던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와 하이틴 영화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면밀한 텍스트 독해가 요구되는 만큼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는 『영자의 전성시대』(1975)를, 그리고 하이틴 영화의 경우는 『고교야개』(1976)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 2.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젠더화된 생체정치와 여성 주체성

### 2.1. 새마을 영화와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라는 짝패

얼핏 보기에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국책영화인 '새마을 영화'와 가장 대중적 장르인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를 유신 체제기의 생체정치 기술과의 상관성 속에 위치시켜 놓고 보면, 두 개의 장르가 하나의 짝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두 장르를 유신체제기의 생체정치기술과 젠더정치의 배열 속에 위치지우면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찾을

15) 이상록, 『박정희체제의 '사회정화' 담론과 청년문화』,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장문석·이상록 엮음, 그린비, 2006, 351-352쪽.

수 있다.

70년대 대표적인 새마을 운동 영화는 『어머니』(1976)와 『아내들의 행진』(1974)을 들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들은 여성을 새마을 운동의 주체로서 설정하고 있다. 요컨대 이 영화들은 전근대의 미몽에 빠져있는 시골 마을에 현명하며 무엇보다 근대화의 가치를 내면화한 ‘아내’가 들어와서 온갖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마을 주민들을 계몽하여 폐배주의와 가난으로부터 마을을 구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의 가치에 대한 국가 주도적, 교육학적 담론들이 여주인공의 입을 통해 언설화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새마을 영화가 호스티스 멜로 드라마와 거울상으로 마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여성 주체, 압축적 근대화, 그리고 가족계획운동을 상호교차적으로 점검할 때이다.

국가-기업-딸의 확대된 가족형태를 떠났던 가부장적 자본주의 근대화 체계 속에서 국민/시민 되기는 젠더화된 것이었다. 개발독재 시기 여성은 생산력과 재생산력을 통해 국민/민족에 통합되었다. 즉, 지방에서 상경한 젊은 여성 노동자의 생산력과 가족계획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재생산력(통제)을 통해서 여성들은 ‘국민’에 통합되었던 것이다.<sup>16)</sup>

가족계획운동은 도시와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었지만 주로 지방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새마을 운동과 역시 잘살기 위한 인구조절이 목적이었던 가족계획운동<sup>17)</sup>은

16) 김은실, 『한국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우리안의 파시즘』, 권혁범·임지현 엮음, 삼인, 2000. 119쪽.

17) 가족계획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60년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에 의해서였다. 국제 가족계획연맹의 경제적, 기술적 도움을 받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만들어진 것은 1961년 4월의 일이다. 그 다음 달 군사 쿠데타 발발과 함께 이 민간 단체는 와해됐지만, 군사정권의 강력한 후원으로 곧 소생하였다. 가족계획은 애당초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었다. 많은 인구수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 1인당 GNP를 높이기 위한 경제개발의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또한 제3세계의 높은 출산율이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세계은행의 보고가 가족계획운동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광범위하게 불임시술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몸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였다.

실제에서는 그 경계선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섞여있었다. 「어머니」의 어머니나 「아내들의 행진」의 아내 역시 계몽화된 여성 주체로서 가족계획운동에 동참하는 듯, 자신의 아이를 낳기 보다는 마을 개량화에 더 열성이다. 전처소생의 아이가 다섯이나 있는 알콜 중독의 상이군인에게 시집간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헌신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각각 현모양처(賢母良妻)에서 ‘현모’와 ‘양처’를 분할한 ‘어머니’와 ‘아내’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모성과는 다른 현모양처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다는 측면에서는 현모양처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생물학적인 아이 대신 근대화된 마을 공동체를 재생산한다.

그런데 이지점에서 흥미롭게도 가족계획운동은 그 과정에서 하나의 모순을 산출한다. “둘만 낳아 잘살아 보자”라는 캠페인 속에서 강조된 피임과 단산은 사실 생산력으로서의 성과 쾌락으로서의 성의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여성의 쾌락으로서의 성이 공공영역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쾌락으로서의 성은 가족계획운동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이었다.<sup>18)</sup>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가부장적인 생체권력에게 의도치 않게 사회적으로 인정된 여성의 쾌락으로서의 성은 불안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의 쾌락으로서의 성은 점점 더 권력기제의 계산속으로 통합된다. 권력은 적극적으로 여성의 성을 관리하고 이용하고 정확한 통제와 전체적인 조절을 행사하고자 한다. 우선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이 그러한 생체정치의 대상이었는데, 지방에서 상경해 혼자 거주하는 공장 노동자에게 관리, 통제, 조절의 기술이 주어졌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장 새마을운동’이다. 한편 결혼도 안하고, 섹스는 하고, 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성노동은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므로), 즉 노동을 통한 생산력과 재생산력(통제)을 매개로 한 국가 프로젝트에 동원되지 않는 여성

18) 김은실, 위의 글, 126쪽.

들은 처녀성을 상실한, “성생활이 문란한” 가장 ‘위험한 여성들’이었다. 그 여성들은 소위 호스티스라는 직업군의 여성 기표로 수렴되었으며, 대중적 상상력 속에서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의 비극적 여주인공으로 재현되었다.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상경해서 중층적인 상실을 경험한 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처벌하는 서사구조를 가진 장르영화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강력한 가족계획 운동이 추진되던 시기, 새마을 영화가 그 규범/법/상징계라면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는 그 외설적인 초자아의 이면과도 같다.<sup>19)</sup>

## 2.2. 하층계급여성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경합-「영자의 전성시대」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를 비롯한 하층계급여성을 다룬 70년대 중후반 영화들은 개발독재 정치체제가 하층계급여성에게 대한 신체적 규율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영자의 전성시대」를 통해 하층계급여성의 주체화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주인공 영자는 압축적인 산업 근대화 시기 하층계급여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정체성들을 경험하고 매번 그것을 신체

19) 이 짝패의 관계는 지젝(Zizek)이 이야기하는 상징적 법과 외설적 초자아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지젝은 상징적 법에는 외설적인 초자아의 이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욕망의 법과 자아이상 사이의 간극이 중요하다. 라캉(Lacan)에 따르면 우리를 도덕적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자아이상이라는 작인은 기존의 상징적 질서의 ‘합리적’ 요구에 따르게 함으로써, ‘욕망의 법’을 배반하도록 강요한다. 초자아는 바로 그러한 욕망의 법을 배반한 데에서 오는 상흔이다. 라캉이 볼 때 유일하게 윤리적인 작인은 욕망의 법인데, 그 욕망의 법을 어긴 데에 따른 죄책감은 초자아로 하여금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압박을 가하게 한다. 외설적 초자아는 바로 그러한 죄책감에서 주체에게 “즐거라!”라는 명령을 퍼붓는 초자아다. 따라서 상징적 법은 그 이면에 필연적으로 외설적 초자아를 설치한다. 더나가 법 자체는 외설적인 보충물을 필요로 하며, 그 보충물로 지탱된다. 1970년대 새마을영화가 상징적 법이라면, 70년대 대중장르영화인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는 그러한 억압적인 상징적 법의 이면으로서, “즐거라!”라는 외설적 초자아의 명령에 대응하는 형식인 것이다.

에 각인하기 때문이다. 영자는 시골에서 상경하여 식모, ‘쪽방’이라 불린 소규모 봉제공장 공원, 바걸(bar girl), 버스차장을 차례로 경험한 후 매매춘 여성이 된다. 주지하듯이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로 요약되는 7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저임금 여성 직업은 ‘식모’, ‘공순이’, 그리고 버스차장이었다.<sup>20)</sup> 이렇게 놓고 볼 때 영자는 그야말로 이 시기 저임금 여성 노동 직종을 연행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70년대 여성 아이콘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한국사회의 여성들이 근대화를 경험했던 특정 방식을 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영자의 전성시대』의 서사는 두 개의 층위에서 진행된다. 영자와 창수의 로맨스를 따라가는 현재 시제의 서사 진행이 그 하나라면, 이것과 맞물리고 교차하면서 영자의 인생유전을 드러내는 과거 시제의 플래시백이 다른 층위를 구성한다. 이 플래시백 장면들은 초반부에는 영자의 회상을 매개로 하지만 중반 이후에는 서사 자체의 논리를 따라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주체의 매개 없이 때로는 거칠고 난폭한 방식으로 영화의 현재적 시간에 투입한다. 현재 시제에서 영자는 한 쪽 팔이 없는 ‘외팔이’ 창녀인데, 이러한 가시적인 몸의 훼손은 그녀의 트라우마이자 영화의 트라우마로 위치한다. 시각적 차원에서 그러한 부재의 현존-외화된 트라우마는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사적 해명을 종용하며, 따라서 이 영화의 플롯은 필연적으로 플래시백 속에 위치한 중핵적(中核的) 장면, 즉 영자가 한 쪽 팔을 잃게 되는 장면을 극적 정점으로 하여 진행된다.

식모로 일하던 주인집 아들에게 강간당한 후 쫓겨나와 ‘아는 언니’의 집에 기거하며 쪽방 봉제공이 된 영자는 죽어라고 일하지만 외상값을 제하고 달랑 동전 몇 푼을 손에 쥐게 된다. 그 언니는 영자에게 바에서 일

20) 통상적인 직업 경로는 시골에서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거나 먼저 상경한 (동네) 언니 등을 따라 상경하여 식모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환경이 열악한 쪽방공장의 공원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다. 규모가 큰 가발공장이나 섬유공장은 그 만큼 입사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웠기 때문에 식모로 먼저 취직을 한 뒤 공장입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호스티스 일을 제안하고,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바에 나가게 된 영자는 그 노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미숙함으로 인해 남자 ‘손님’으로부터 “집에 가서 술뚜껑 운전이나 하라”는 충고를 받는다. 그런데 오히려 영자는 “운전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녀의 욕망을 드러낸다. 따라서 “술뚜껑 운전이나 하라”는 외부로부터의 호명과 주체적으로 근대적 기술을 획득하고 싶다는 그녀의 욕망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다.

영화는 ‘술뚜껑운전’과 ‘운전공부’라는 중첩된 사운드를 단서로 해서 그 중핵적 장면으로 전환된다. 급작스럽게 장면전환이 이루어지면 빠른 템포로 서울시내 전경 쇼트들이 제시된다. 이 쇼트들에 이어 카메라는 거리를 건다가 무언가를 응시하는 영자를 보여준 후, 거칠게 커트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여성 기사를 보여준다. 그 다음엔 바로 버스차장이 된 영자를 보여주는데, 중심을 잃은 만원버스에서 튕겨져 나와 차도에 쓰러진 영자는 자신의 한 쪽 팔을 잃게 된다.

이 장면은 매우 빠른 템포로 진행되며 또한 부분적인 다큐멘터리적 촬영법, 초현실적인 쇼트 등 다분히 실험적인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는 영화 전체의 톤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자아내는데, 이 장면은 영자의 트라우마의 상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영자의 팔이 잘리는 쇼트는 잘려진 영자의 팔이 거대한 고층빌딩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촬영되었다. 이는 근대화의 상징인 고층건물과 영자의 잘린 팔의 충격적인 시각적 대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근대화가 여성의 몸에 가한 훼손을 의미화한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주인공 영자가 자신의 욕망을 협상하며 주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다. 응시하는 영자의 쇼트와 영자의 시점 쇼트로 제시되는 여성 택시운전사 쇼트는 운전기술을 습득하고 싶다는 영자의 욕망을 명시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여기서 영자의 동일시가 젠더 동일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졌음 역시 분명하다. 영화 전체를 통틀어 줄곧 중층적인 억압적 시선들-매매춘 단속 경찰관의 시선에 매개된 국가장치의 통제적 시선, 직접적으로 카메라로 매개되는 남성들의 욕망

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는 영자가 응시의 주체가 되고 욕망하는 주체가 되는 짧은 순간인 것이다.

그리고 이 쇼트들은, 일종의 생략법에 의해, 바로 버스차장이 되어있는 영자의 쇼트로 이어지는데, 이 쇼트의 배열이야말로 여성의 주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무 기술도, 자본도 소유하지 못한 하층계급의 여성이 운전이라는 근대적 기술에 대한 욕망과 기술습득이 불가능한 조건 사이에서 협상한 결과로서 버스차장을 선택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협상 과정은 생략법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녀의 팔이 날아가버림으로써 영자는 다시 고통스러운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중핵적 장면은 70년대 수출지향의 산업화시기에 '산업역군'으로 호명되며 서울로 상경했던 임노동 여성들의 욕망과 좌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또한 그들의 몸과 노동을 담보로 이룩된 조국근대화를 성찰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처럼 「영자의 전성시대」에는 지속적인 정체성과 주체성 간의 긴장이 있다. 폴 윌먼(Paul Willemen)에 따르면 근대화는 문화적 텍스트가 정체성과 주체성 사이의 긴장들을 조율하는 방식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여기서 정체성이란 제도적인 배열과 억압들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고, 주체성은 그러한 정체성의 영역을 항상 초월하는, 사회적 환경과 관련해 개인이 취하는 복합적인 방식이다. 아무리 제한적이고 억압적이라 하더라도 제도는 우리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어떤 형태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에 정체성은 회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정체성은 우리를 공공의 사회제도로 묶어내고 이익 집단의 일원으로 규정 관리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sup>21)</sup>

영자가 식모를 그만두게 된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부여된 식모의 정체성을 초과하는 욕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영자는 주인집 아들에게 강간당한 후 수동적인 순응의 방식으로 주인집 아들의 성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21) 폴 윌먼, 「한국영화를 통한 우회」, 『트랜스: 아시아 영상문화』, 현실문화연구, 2006, 591-592쪽.

그것은 그러한 성적 행위를 사랑으로 오인하고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녀의 순진한 오인에 기인한 것이다. 영자에게 정체성은 그 주변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로 부여되는데, ‘땡전 한 푼, 등 누일 곳 없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춘을 권유한다.

그 주어진 정체성에 저항하지만 결국 영자가 창녀가 되는 과정은 그러한 정체성에 자신을 힘겹게 동일화하는 과정이다. 물론 정체성에 자신을 동일화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은 몸과 관련된 것이다. ‘외팔이’라는 불구성, 그리고 ‘매독’으로 표상되는 몸의 훼손이 그것인데, 영자는 “하루라도 빨리 폭폭 씹어서 죽고 싶은 여자”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그러한 영자의 훼손된 몸을 유순한 몸으로 다시 포섭하려는 노력은 창수에 의해 매개된다. 창수는 영자에게 직접 보철물인 의수를 만들어주는 한편 매독에 걸린 영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시키고, 밤에 자신이 일하는 목욕탕으로 불러내 그녀의 몸을 씻겨준다. 이것은 일종의 정화의식(淨化儀式)이라고 볼 수 있다. 70년대 개발독재 정권은 실제로 수많은 정화담론을 생산, 유통시켰으며 그를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지배 엘리트 계급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매매춘을 동원, 관리하였는데, 그때 붙여진 캠페인이 바로 군기지 정화운동이었다.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몸에 대한 미시적 규율정치로서 군기지 정화운동이 목표로 삼은 것은 그녀들의 몸을 순종적인 신체로 만드는 것이다. 순종적(docile)이라 함은 분석 가능한 신체에 조작 가능한 신체를 결부시키는 것이다. 즉, 복종시킬 수 있고 쓰임새가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가 바로 순종적인 신체이다.<sup>22)</sup>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군기지 정화운동의 목표인 기지촌 여성들의 순종적 신체 만들기는, 단순히 그들의 병든 몸을 관리하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쓰임새 있는, 다시 말해 성노동이 가능한 몸, 미군들에게 안전한 섹스를 보장할 수 있는 몸, 더 나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는 국가적 이익에

22) 미셸 푸코, 위의 책, 215쪽.

기여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창수가 영자에게 행하는 이 정화의식은 디체시스 내에서 치유로서의 의미를 띤다. 하지만 이 정화행위에는 당대의 정화담론이 침윤되어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남성 주체성 속에 각인되어 있는 가부장적 남근중심주의다. 영자의 이미지에 그 음화(陰畵)로서 기생관광 종사자와 미군 기지촌 매매춘 여성의 이미지가 겹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때밀이’ 창수와 ‘창녀’ 영자는 모두 하층계급 노동자이지만 이들이 근대화를 통과하고 경험하면서 주체화되어 가는 과정은 매우 상이하다. 영자가 상경해서 식모, 여공, 바걸, 버스차장, 창녀를 거치는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주어진 정체성에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과정이다. 반면, 창수는 ‘공돌이’, ‘베트남 참전용사’, ‘때밀이’를 거치면서 재단 기술을 익히고 양복점 사장이 된다. 베트남 참전의 경험이 창수에게 순종적 신체화를 통해 국가 성원으로 포섭되고 얼마간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것이 재단 기술을 몸에 습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근대화의 경험과 국민성원되기 과정이 창수에게는 단속적으로나마 국가제도로의 포섭 과정이었다면, 영자에게는 지속적인 배제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는 ‘근대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대중동원의 방향이 근대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적당한 자리가 어디인가에 관한 체계모니적 이해에 의해 정해졌음을 이해하게 한다. 그 기초가 된 것은 남성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사람이고 여성은 아이들 낳고 키우는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였다. 그에 따라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했고 산업 경제에서 일차적인 노동력이 될 것을 요구받았다. 반대로 경제적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주변화된 여성은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산아제한을 하고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하도록 요청받았다.<sup>23)</sup> 국가가 근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원들을 ‘국민’으로 구축하는

방식은 이처럼 성별정치에 기반한 것이었다.

### 3. 하이틴 영화: 명랑하고 건전한 남성 주체 만들기-「고교알개」

#### 3.1. 노동역량과 남성우정신화

하이틴 영화<sup>24)</sup> 「고교알개」는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알미운 개구장이’ 고등학생 나두수가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성장담이다. 그 과정은 두수가 인숙, 호철과의 관계를 통해서 중층의 차이들을 직면하고 경험하고 인식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인숙과는 성적 차이를, 그리고 호철과는 계급적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다. 「고교알개」의 두수는

23) 문승숙, 위의 책, 15쪽.

24) 하이틴 영화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신문, 포스터, 기사, 영화평 등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청소년 영화’, ‘학생 영화’, ‘고교 영화’, ‘10대 영화’, ‘청춘 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었으며 용어 사용에 일관된 합의가 없었고, 그 말걸기 대상과 연관되어서는 ‘학생취향 영화’라는 용어도 유포되었다. 오히려 하이틴 영화라는 용어는 후에 한국영화사를 기술하는 책들을 통해서 70년대의 특징적인 새로운 장르로 지칭되면서 정착되었다. 하이틴이라는 용어는 청소년 중에서도 후기 청소년(late teenage)을 지칭하는 일본식 용어이다. 박민정은 하이틴 영화를 ‘하이틴 관객을 주 대상층으로 삼은 하이틴의 재현물’로 정의하고 있다. 박민정, 「1970년대 하이틴 영화에 대한 장르적 접근과 대중성 연구」,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21-26쪽.

강준만이 쓴 『한국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에서 1976년의 제목은 「히스테리와 광기 속에서」다. 바로 그 히스테리와 광기의 주요한 현상으로 언급된 것이 ‘하이틴 영화의 성행’이다. 1976년은 하이틴 영화 제작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 「진짜진짜 잊지마」로 촉발된 하이틴 영화는 그 해에만 25편이 제작되었고 그중 10여편이 당시 기준으로 흥행 성공작이다. 긴급조치 9호가 발효된 다음 해이며, 국내적으로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대외적으로는 ‘코리아케이트’ 사건이 터짐으로써 냉전 체제 시기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6년은 또한 가족계획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던 해이기도 하다. 요컨대 냉전 체제가 강제하는 위기가 국지적, 지구적 차원에서 남한을 관통하며 긴장을 고조 시키고 생체정치가 정점으로 치달았던 시기였던 것이다. 하이틴 영화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여 1977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그 생명을 누렸다.

상층계급 구성원이다. 아버지는 교수이고 자신의 제자인 두수 담임선생에게 두수의 과외지도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두수의 장난질은 어느 정도 이러한 그의 계급적 안정성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두수가 그 자신의 계급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는 같은 반 ‘범생이’ 호철과의 불화 때문이다.

어느 날 호철의 고자질로 선생님에게 혼이 난 두수는 복수를 다짐하고 장난질을 계획하는데, 호철이 책상에 잠든 사이 안경에 붉은색을 칠하고는 급우들과 짜서 “불이야”라고 외쳤던 것이다. 당황한 호철은 우왕좌왕하다 안경을 깨트린다. 이 ‘불이야 사건’은 두수의 장난질을 중심으로 에피소드적 구성을 이어가던 서사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다. 두수는 호철이 자신의 장난질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며 그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호철이 시민아파트의 옥탑방에서 공장에 다니는 누나와 함께 사는 하층계급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호철의 누나는 시골에서 상경해서 동생을 교육시키는 전형적인 70년대의 ‘여공’이다. 두수는 어려운 집안형편 속에서도 공부에 열심이었던 호철을 보고 자책감과 동시에 인식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이 장면 이후 두수는 전혀 다른 주체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호철을 대신해 새벽에 ‘서울우유’를 배달하고 수업 중에는 그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중하며 매일 호철을 방문하여 그날의 필기 노트를 호철에게 전달한다. 그러면서도 명랑성은 잃지 않는다. 이전 수업시간에 던지던 두수의 질문은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던 것이었던 반면, 사건 이후의 질문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 수업을 유쾌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요컨대 ‘불이야 사건’ 이전의 질문이 악동질을 통해 유쾌함을 의도한 것이었다면 이후의 질문은 순진무구한 질문의 결과가 유쾌함을 생산하는 것이다.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함’이라는 명랑의 사전적 의미를 놓고 본다면 후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명랑성인 셈이다. ‘명랑성’은 군사정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사회적 덕목이자 이데올로기였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명랑한 학교생활, 명랑한 사회생활”이라는 모토를 가진 ‘스마일

운동'을 전개하였고, 각 급 학교들은 노란색 '스마일 배지' 달기를 반의무화 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또한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아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랑성에 대한 강조는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사회정화(社會淨化)담론 속에서 작동하였던 것으로, 사회정화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된 하나의 사회기획이었다.<sup>25)</sup> 요컨대 사회정화담론이 추구하는 국가재건은 ‘질서 있고 명랑한 사회’였다.

명랑성에 덧붙여, 추운 겨울이 되도록 우유배달을 하는 두수의 모습을 몽타주로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 노동의 숭고한 목적-친구를 위한 희생, 두수는 우유 배달비를 호철의 치료비로 준다. 을 드러냄으로써 두수는 이전의 알개와는 다른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두수는 노동의 가치, 희생과 참된 우정의 의미, 공부의 방법을 획득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명랑하고 건전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영화는 과잉적으로 두수의 우유배달 행위를 반복하여 보여준다. 건강한 신체를 지지하는 우유가 가진 상징성과 더불어 그 장면은 두수의 노동 자체에 숭고미를 부여하고자 하며 그와 같은 의도는 그가 상층계급 구성원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 강조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두수라는 주체를 통해 보여지는 잠재적인 노동-역량(labor-power)에 대한 찬미다. 빠올로 비르노(Paolo Virno)에 따르면,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역량이며, 역량이란 능력, 재능, 가능태

25)한국사회에서 사회정화가 하나의 사회적 기획으로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최초로 집행된 것은 군사 쿠데타 직후이다. 쿠데타 성공 당일인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6개항의 ‘혁명공약’ 중 3항은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사회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회정화는 강패소당과 부정부패척결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강패들이 행사하는 사적폭력을 국가폭력으로 굴복시킴으로써, 국가는 합법적 폭력으로서 공권력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에 순응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국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폭력배 근절은 ‘질서 있고 명랑한 사회가 건설될 수 있는’ 선행조건으로 강조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발정책을 포함한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정화운동이 다시 강조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학원정화운동’이었다. 1970년에는 ‘명랑사회건설 종합지’를 표방하는 『사회정화』가 발간되었다.

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노동-역량과 실질적 노동의 차이에 토대를 둔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노동-역량은 그야말로 순수한 역량, 가능태로서의 역량으로 비-현재적인, 비-실재적인 어떤 것이다.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비실재적, 비현실적인 어떤 것을 수요와 공급의 형태로 종속시킨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역량의 역설적인 성격, 즉 오로지 잠재적인 비현실적, 비실재적인 것을 상품들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생체정치의 전제라는 점이다. 노동자의 살아있는 신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독립적인 실존도 갖고 있지 않은 노동-역량의 근본 토대인 것이다. 살아있는 신체가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이 지닌 고유한 가치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것, 극히 다양한 인간능력의 총합으로서의 노동-역량의 근본 토대이기 때문이다.<sup>26)</sup>

두수의 주체화 과정과 관련하여 우유배달 장면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다. 두수가 우유배달을 하는 현실적인 노동생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잠재적인 그의 노동-역량, 순수한 노동-역량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수는 이전과는 다른 몸, 즉 국가장치가 생체 정치를 통해 얻고자하는 몸- 잠재적인 노동-역량의 저장고로서 구성된다. 두수의 몸은 노동-역량의 토대로서 그 잠재적 가능성을 재현함으로써 노동-역량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가 그 노동-능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적합한 몸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명랑성이 진정으로 중요해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20세기에 들어 인간 감정에 있어서 커다란 전이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근대 주체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멜랑콜리에 부여되던 가치가 명랑성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것은 20세기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 가치에 대한 중시에 기인한 것으로서 명랑성은 적극적이고 유능한 노동력의 표상이자 중산층의 행복을 재는 척도가 되었다.<sup>27)</sup>

26) 싸울로 비르노, 『다중』, 김상운 옮김, 갈무리, 2004, 136-143쪽.

27) Kotchemidova, Christina, "From good cheer to 'Drive-by-smiling': A social history of cheerness", *Journal of Social History*, Fall, 2005, pp.7-15. 유선영, 초

따라서 하층계급인 호철의 생계를 위한 노동은 영화에서 재현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층계급의 두수로 하여금 노동-능력을 가시화하게 함으로써 생계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영역, 우정과 희생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호철과 호철 누나의 노동은 재현의 영역에서 비가시화 된다.

두수가 처음 호철을 찾아갔을 때 호철은 다리가 부러진 채 누워서 두수에게 감정적인 어조로 일장연설을 한다. “저 밖의 고층건물을 봐...땀과 피로 이루어진...나는 저 빌딩 속에 뛰어들어 주인공이 될테야...우리에게 밝고 희망찬 내일이 있어...그 풍요로운 미래를 생각해봐...” 명백히 호철의 이 언설은 성장위주의 개발국가가 ‘청소년’에게 요구하는 건전하고 명량한 주체에 대한 계몽적인 이데올로기를 복화술처럼 내면화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언설이야말로 <고교야개>에서 대타자의 시선이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각인된 부분이다. 이 언설에 두수는 감동하며 호철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린다. 이후 둘은 계급의 차이를 넘어 즉각적인 우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 과정은 두수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여 그 우정을 지켜가는 과정이다. 무엇보다 이 장면은 자본주의 개발국가의 이상적인 우정 개념을 잘 보여준다. 남성들 간의 우정은 국가적인 개발관념을 공유하는 연대 위에서 구축되는 것으로 상상된다.

숭고한 우정과 잠재적 노동-역량의 축적을 통한 미래의 국가 주체로서의 새로운 주체성 획득은 결국 하층계급 남성과의 거울보기 과정을 통해 상층계급 남성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상층계급 남성 두수는 우유배달이라는 하층계급의 경험을 전유함으로써 새로운 주체로 거듭난다. 이 과정은 또한 계급 간의 차이, 호철과 호철 누나가 불러일으키는 조국 근대화 담론의 모순들을 우정 신화로 통합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통합의 주체 나두수가 삼대독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또한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계의 함의를 환기 시키면서 나두수를 민족 정통성과

근대성의 가치가 조화된 민족주체로 호명하는 기능을 갖는다. “고교생의 특권은 내일의 세대”라고 힘주어 말하는 담임선생의 언설처럼 이제 두수는 민족의 내일을 이끌어갈 ‘명량하고 건전한’ 주체로 거듭난다.

### 3.2.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사전처방으로서의 섹슈얼리티

두수가 근대적인 미래 국가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은 또한 성적 차이에 직면하여 성적 관계 및 성적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과 중첩된다. 서사적으로 이것은 담임인 백선생 하숙집의 “근대화 연쇄점” 딸 인숙과의 로맨스를 통해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고교알개』가 에피소드적 구성이고 심각하지 않은 코미디에 기반 해 있기 때문에 인숙과의 로맨스 역시 인숙에게 잘 보이려는 두수의 우스꽝스럽고 어설픈 행동들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그러한 명량성이라는 한계 내에서 진행되던 두수와 인숙의 관계는 영화 중반 한 장면에서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방식으로 돌출된다. 두수는 야외캠핑에서 장난이 발동하여 의도적으로 인숙의 자전거 타이어에 핑크를 낸 뒤, 그것을 빌미삼아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데, 마침 그날은 비가 많이 온다. 인숙은 두수를 방안으로 데려가서 젖은 그의 옷을 벗게 하고 몸을 닦도록 도와준다. 데면데면하던 인숙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설정도 급작스럽지만, 이 장면을 진정으로 돌출적으로 만드는 것은 촬영방식이다. 이 장면에서 두수가 옷옷을 벗는 한 쇼트는 인물들로부터 물러서서 풀 쇼트로 그들을 프레임 하는데, 이 쇼트는 갑자기 조명 설정을 변경하여 실루엣 모드로 찍혀졌다. 그리하여 그 쇼트는 두수와 인숙 간에 마치 성애적 접촉이 일어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외설적으로 보이도록 촬영된 것이다. 70년대 당시 검열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성애 장면 대신 이러한 실루엣 촬영이 하나의 관습이었다는 점, 그리고 달려 같은 대중적 이미지 속에 이러한 성애적 묘사가 유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쇼트가 의도한 바는 명백하다.

앞 쇼트들의 실내조명 설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쇼트는 디제시스의

논리를 파괴하며 관객들의 시공간적 봉합마저 교란한다. 그렇게 시각적, 서사적 차원에서 돌출되는 이 쇼트는 백선생이 둘의 관계를 오해하도록 하기 위해 억지스럽게 삽입된 쇼트다. 놀란 백선생은 인숙을 불러 둘의 사이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인숙을 타이른다. 목격자가 다름 아닌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는 것 역시 그러한 계몽적 언설에 힘을 부여한다.

이 장면은 디제시스적 인과논리보다는 다른 것을 위해서 억지스러움을 감수하면서 외삽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당시 10대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재반복하면서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이성교제’의 범주에 대한 한계를 긋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장면은 두수와 인숙에게는 건전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서사적 사전 처방이며 동시에 이 영화를 보는 10대 관객들에게는 그들에게 허용되는 ‘바람직한’ 섹슈얼리티에 관한 지배적인 사회적 관점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미래의 국가 주체를 위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율은 두수와 인숙의 로맨스 라인과 병행적인 관계를 갖는 백선생과 두수 누나의 로맨스를 통해 완성된다. 『고교알개』의 마지막 장면은 백선생과 두수 누나의 결혼식 장면으로, 영화 전체의 에필로그 역할을 담당한다. 서사적 진행 논리를 따를 경우, 에필로그는 진정한 화해와 우정에 이르는 두수와 호철을 중심으로 한 학교생활이나 두수와 인숙의 건전하고 명랑한 데이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고교알개』는 이전까지 하위 플롯으로만 진행되던 백선생과 누나의 결혼식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이는 관습적으로 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프롭(Prop)을 비롯한 많은 서사 연구자들이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로맨스의 서사적 결말이 결혼으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하이틴 영화로서 이 영화에서 로맨스는 부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결혼 장면은 앞에서 ‘건전하고 명랑하게’ 설정된 두수와 인숙의 ‘이성 관계’ 혹은 섹슈얼리티와 조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서 영화는 사회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성 관계’ 모델로서 이성애적 결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본 논문은 70년대 유신체제의 정치체적 성격을 개발독재로 보고 그 정치 지배적 특성은 광범위한 의미의 생체정치였다는 관점에 주목했다. 70년대 독재 권력은 국익과 개발의 이름으로 국민 동원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원의 살아있는 신체, 삶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정치적 영역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생체권력이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은 개발 독재라는 특정한 한국의 정치사회적 문맥 하에서 당대의 대중 영화를 몸/삶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자 의미 투쟁의 장으로서 읽고자 했다.

여기서 본 글은 70년대 생산된 전체 한국영화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하이틴 영화와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에 집중했다. 이 장르들이 당대의 대중성을 획득한 영화일 뿐만 아니라 70년대적 특정성 및 젠더화된 생체정치의 작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 텍스트들의 의미화 작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그 작업에 있어서 당대의 집단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시각적 장치와 서사에 주목하고자 노력했다.

본 논문이 핵심적인 토픽으로 설정한 것은 젠더화된 생체정치와 주체성 구성의 문제였다. 주체화 및 근대성과 관련하여, 거칠게 요약하자면, 하이틴 영화 ‘알개시리즈’는 미래의 국가를 이끌고 갈 세대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온전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로 규정되는 청소년의 재주체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들에서 10대 남성주체는 훈육, 역량 강화, 정신개조, 남성 우정신화 등을 통해서 자본주의에 기반한 개발 국가에 적합한 유용성 있는 건전한 주체로 다시 태어난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십대 남성 주체의 명랑성에 기반한 알개 시리즈와는 달리, 낭만성을 주 정조로 하면서 남자친구의 주체화 과정에 헌신하는 현모양처형 십대 여성을 등장시키는 또 다른 주요 하이틴 영화였던 ‘진짜진짜 시리즈’를 함께 고려하면, 10대 주체구성의 젠더정치를 좀 더 풍부하

게 읽을 수 있다.

반면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하층계급여성들을 지속적으로 배제시키는 과정이다. 다중적인 상실과 배제를 그 전제로 하는 이 장르 영화에서 여성 주체들은 구성적으로 우울증적 주체이다. 젠더화된 근대성을 추구하던 개발독재시기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여성이 국민성원으로 포섭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생산력과 출산의 재생산력을 통해서 였는데, 그 경계에 있는 여성들, 즉 노동하지 않고 재생산에도 기여하지 않는 '성적 경험이 많은' 여성들은 강력한 처벌의 서사를 통해 민족적 상상 외부로 타자화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장르는 푸코가 이야기하는 70년대의 일종의 '문화적 성감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발독재 생체권력이 삶을 예측하고 계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을 부추기고 성에 대해 말하면서 성규범에 대한 도덕률을 조절하는 권력기술로서 그러하다.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개발독재 국가가 근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체정치를 통해 성원들을 '국민'으로 구축하고 주체로 호명하는 방식은 이처럼 성별 정치에 기반한 것이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 편-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 1, 2, 3권, 인물과 사상사, 2002.
- 김 원, 『여공1970-그녀들의 反역사』(개정판), 이매진, 2006.
- 문승숙,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이현정 옮김,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6.
-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5.16에서 10.26까지』,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역사비평사, 2007.

-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6.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정일준 옮김, 새물결, 2008.  
 캐서린 H. S. 문, 『동맹 속의 섹스』, 이정주 옮김, 삼인, 2002.  
 싸올로 비르노, 『다중』, 김상운 옮김, 갈무리, 2004.

## 논문

- 김은실, 『한국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우리안의 파시즘』, 권혁범 · 임지현 엮음, 삼인, 2000.  
 박민정, 『1970년대 하이틴 영화에 대한 장르적 접근과 대중성 연구』, 동국대 연극영화과 석사학위논문, 2002.  
 유선영, 「초민족화 프로젝트의 정신기술과 문화변종: 호스티스영화」,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학술심포지엄 “박정희 시대의 국가와 일상 생활” 자료집』, 2006.  
 이상록, 『박정희체제의 ‘사회정화’ 담론과 청년문화』,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장문석 · 이상록 엮음, 그린비, 2006.  
 폴 월먼, 『한국영화를 통한 우회』, 『트랜스: 아시아 영상문화』, 현실문화연구, 2006.

## Abstract

### Bio-politics and constructing gendered subjects in 1970s

-Focusing on hostess melo-drama and teenpics-

Kwon, Eunsun

The dictatorial government in the period of Yushin regime (1970s) carried out various of bio-political techniques such as birth control, the new community movement, a curfew etc. to unify the people and integrate nation consciousness. So-called Park's regime was a bio-pouvoir that involved people's lives and bodies into political sphere to accomplish national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rapidly.

For this reason, this thesis considers specific Korean popular films in 1970s that revealed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the dynamics of bio-political technique, bodies, subjectivation and modernization of those days. Focusing on melo-drama and teenpics gained in popularity at that tim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of gendered bio-politics and constructing subjectivity.

Key words : bio-politics, developmental state, subjectivity, hostess melo-drama, teenpics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